공연, 전시 관람 같은 다양한 문화 경험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하지만 유명 캐릭터 등을 활용한 공연 이외에는 딱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행사를 찾기는 어렵다. 봄을 맞아 눈에 띄는 공연이 어린이들을 찾아온다.

봄의 몸짓, 봄의 소리… 어린이 위한 감성무대들

그린발레단 '백설공주' (22일)

공주와 왕자의 러브스토리
일곱 난장이와 사랑스런 동물들
진시영 미디어아트 협업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다가가는 장르가 발레다. 매년 연말 전국의 각 발레단이 무대에 올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관람객에는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그린발레단이 선보였던 창작 동화 발레 '백설공주'는 아이들에게 잘 알려진 스토리와 재미있는 안무, 음악, 무대 등이 어우러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2년 그린발레단이 무대에 올렸던 '빛의 정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기금 사업에 선정, 30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백설공주'가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만나게 됐다. 22일 오후 4시·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박경숙(광주여대 무용과 교수) 단장이 안무한 '백설공주'는 스토리를 찬찬히 따라가며 포인트 있는 안무로 작품을 이끌어간다.

알록달록 의상을 차려입은 일곱 난장이들의 흥겹고 코믹한 몸짓과 숲속에 사는 동물들의 모습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 사랑스러운 백설공주의 캐릭터도 눈길을 끈다.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씨와의 협업은 이번 공연에 색다른 느낌을 부여한다. 기존 발레작품에서 사용하는 세트 대신,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무대 배경과 앞 부분에 보여지는 영상물은 관객들의 흥미를 자아낸다.

지난해 광산문예회관 무대 당시 열악한 공연장 사정으로 마법의 거울과 미디어 아트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넓어진 공연장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기대된다.

광주시립무용단 신송현씨가 주인공 백설공주 역을 맡았으며 김선돈·이승윤·진성우·강진구·조성미·벨릭떼 노르보예프 등이 출연한다. 광주여대 무용과 학생들도 함께 호흡을 맞췄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1588-0766.

카잘스 페스티벌 어린이 콘서트 (19일)

라벨 '어미거위'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바리톤 김재일씨 나레이션 진행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접하게 해주려는 엄마들에게 반가운 공연이 찾아온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명 아티스트들이 꼬마 관객들을 대상으로 연주하는 게 인상적이다.

'2014 카잘스 페스티벌 인 코리아' 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위한 콘서트'가 19일 오후 2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6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카잘스 음악제 현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공연이다.

연주자는 프랑스 카잘스 페스티벌 예술감독인 클라리넷 연주자 미쉘 레티엑, 하노버 음대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알텐부르크, 서울대 교수 백주영씨 등이다.

연주 곡목은 아이들이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라벨의 '어미 거위'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다. 특히 '동물의 사육제'는 아이들이 음악이 표현하는 동물 등을 머리 속에 그려보며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레퍼토리다. 바리톤 김재일씨가 이야기 형식으로 나레이션을 진행한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문의 02-522-418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르토 노라스

봄날, 세계 거장들을 만나다

'카잘스 페스티벌 인 코리아' 19일 광주문예회관

프랑스의 카잘스 페스티벌은 62년 전통을 이어온 음악축제다. 스페인 내전 당시 스페인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1876~1973)가 프랑스에서 이작 펄만, 카라얀, 피에르 푸르니에 등과 함께 스페인을 돕는 기금 마련 콘서트를 한 데서 유래한 카잘스 페스티벌은 이후 대표적인 실내악 축제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카잘스 페스티벌 인 코리아'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연 '2014 카잘스 페스티벌 인 코리아'는 광주에서도 첫 선을 보인다.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어느 화창한 봄날에'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파리음악원 교수이자 프랑스 카잘스 페스티벌 예술감독 미쉘 레티엑(클라리넷), 잉글리쉬 체임버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길모아 아티스트 어워드를 수상한 랄프 고도니(피아노), 하노버음대 교수 크리스티안 알텐부로거(바이올린), 시벨리우스 음악원 교수 아르토 노라스(첼로), 서울대 음대 최연소 교수 백주영(바이올린), 김규연(비올라), 백나영(첼로)씨 등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를린 힌데미트 페스티벌 위촉곡 류재준(카잘스 페스티벌 인 코리아 예술감독)의 '3개의 마드리갈', 고전과 낭만의 감성이 잘 어우러진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슈만의 '피아노 4중주 1번'이다. 티켓 가격 5만원~2만원. 문의 02-522-418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크리스티안 알텐부로거

랄프 고도니

백주영

'브라보 마이 라이프'

윤남웅·조장은 초대전
신세계갤러리 24일까지

쉰둘 남성 작가와 서른둘 여성 작가의 만남. 다른 세대이지만 묘하게 어울리는 두 작가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24일까지 윤남웅, 조장은 작가를 초대해 '믹스 앤 매치(mix&match)' 시리즈 첫 번째 전시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 my life)'를 연다.

진도 출신으로 남도의 정서를 독특한 색채로 담아내고 있는 한국화가 윤씨와 서울에서 나고 자라면서 30대 여성의 평범한 일상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는 조씨 등 두 작가는 스무 살이라는 나이 차이와 함께 살아온 환경이 판이하다. 하지만 비슷한 조형세계를 보여준다.

지난 1년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윤씨는 골판지와 석고, 붕대, 지점토 등에 특유의 어눌하게 보이는 붓 터치로 담아낸 익살스러운 삶의 흔적들을 이야기한다.

'아무도 내게 청혼하지 않았다'에 담긴 24명의 남성들. 발칙한 제목처럼 이 작품에는 30대 여성의 결혼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조씨는 취업과 결혼 등 현 세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고민을 다채로운 색채로 편하게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22일 오전 11시에는 '움직이는 종이 인형'을 만들어보는 미술수업이 열린다. 문의 062-360-127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윤남웅 작 '바람 그리고 놀다'

조장은 작 '아무도 내게 청혼하지…'